

## 아시아 건축사 협의회(ARCASIA) 참관기

### ARCASIA FORUM 11

제 22회 아시아 건축사 이사회(Council Meeting)와 제 11회 Forum 이 싱가포르 건축사협회 주관으로 2001년 9월 3일 부터 5일간에 걸쳐 싱가포르 중심가에 위치한 Suntec City, 국제 회의장에서 개최되었다. 국내 대표단은 이철호 본 협회 부회장을 단장으로 국제위원 5명이 참가하였다. 필자는 작년 말레지아 이사회에서 "C" 지역 부회장으로 선출된 후 처음 회장단으로 참석하게 되어 감회가 새로웠다. 참석전 예전과 같지 않게 사전 회의 자료들이 E-Mail로 전송되어 정보화 시대에서의 국제 회의 양상이 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대표단 구성 중 벌써 제일 고참이 되어 있는 필자를 볼 때 빠른 세월이 피부에 와 닿는다. 9월 2일 이미 이사회와 진행 사항들과 주안점 등이 자문협의회(Fellowship Meeting)에서 한차례 정리되었다. 본 협회에서도 Fellowship Member가 있으나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참석치 못하였다. 이에 회의 진행 내용을 접수하지 못하게 되어 유감으로 생각되었다.

이사회와 논의 내용과 Forum 발표 내용은 국제위원이 분담하여 작성, 보고하기로 하여 필자는 본 란을 통해 대한 건축사 협회가 국제회의에 임하여야 하는 자세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기술하고자 한다.

아시아시피 국내 건축 3단체가 FIKA(3단체 건축 연합회)를 구성하여 그 세부 역할을 조정하고 있고, WTO 산하에서 급변하는 국제 건축동향을 국내 실정에 맞추어 조정, 개진, 건의해야 하는 통로로 우리가 속해있는 국제회의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이는 우리가 국제단체에 가입한 기본 정신이며 후배들에게 물려 줄 소산의 일부이기도 하다.

지난 8년간 본 협의회를 참석하며 느끼는 점이지만 참석할 때마다 본 협의회를 주도적으로 이끌고가는 나라의 대표단은 동일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P.Kasi, Jaigham Jaffery, Ronald Poon, Goh Jeong Chia, Edward Silver, Kington Loo, Tony Wong, Keneth Yeang, Ruwis, Khambatta, Mohamed Esa, Hisham, Albakri, Koichi Nagashima, Lakshman, Alwis, Surath, Barry Will, Tay Kheng Soon 등, 본 회의에 한번이라도 참석한 회원들은 그들의 이름을 어렵거나 기억할 것이다. 이들이 지금도 아시아 16개국으로 구성된 본 협의회를 이끌고 가며 계속적으로 국제사회(UIA, CAA, SERTH 등)의 건축 관련 정책 결정에 임감을 쏟고 있다. 특히 이들은 UIA에서 "국제 건축사 상호 인정 표준안" 작성을 WTO로부터 위임 받은 이후 아시아 국가를 대변하여 세부 지침 작성에 적극 참여하여 "Host Nation에 대한 특례 조항", "건축사의 역할과 업무 범위", "지적재산권 보호" 등 저개발 또는 개발도상국이 많은 아시아 국가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다.

이는 자국의 지원하에서 개인의 열정이 결합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적 위상이라 할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실감할 수 있으며 개인과 국가간의 친분과 외교력의 산출일 것이다. 그간 국내에서는 UIA문제는 회원협회인 한국건축가협회(KIA)가 창구이었으며 ARCASIA는 대한건축사협회(KIRA)가 담당하였으나 FIKA가 발족된 이상 점진적으로 국내의 국제 문제가 일원화된 목소리로 국제사회에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필자는 그간 국제 문제에 식견이 많고 경험이 많은 회원들로 구성된 자문회의(Inner Circle) 즉 내부 조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바이다. 이는 국제문제의 사안별 책임자 선정, 국내이익을 극대화한 대안제시, 국제사회 요구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 및 접근 방향 모색 등 국내 제도개선을 점진적으로 최소화하여 대응하는 방안을 연구

할 수 있으리라 본다. 좋은 예로 지금 많은 대학이 UIA 기준에 맞는 5년제로 학제를 개편하는 작업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UIA 기준 효력은 생방 또는 다지 협상에 의한 것으로 전 재되어 있는 이상 실제 현 국내제도와 학제를 전제로 어느나라가 협상에 임해 보았는지 그 결과는 어떠하였는지 먼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글/이근창)

비롯하여 각국 대표들이 함께 자리를 같이 하였다. 참석대표들은 싱가포르 대표단을 비롯하여 방글라데시, 중국, 홍콩, 인도·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마카오, 말레이시아, 몽고, 파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대표 등 총 16개국이 참석하여 이사회가 개최되었다. 먼저 아카시아 회장인 Arch 자이아그람 제프리씨의 개회사와 포럼이 성황리에 진행되도록 본 대회를 준비하였던 싱가포르 건축사회에 감사를 표시하였다.

이어 직전회장이었던 P. Kasi의 인사말과 본 대회 convener의 이번 포럼 준비 내용과 포럼 주제를 설명하고 각국 대표단에게 환영인사말을 하였다. 또한 UIA 회장인 Arch, Sgoutas씨의 축사로 회의장 분위기는 한층 고조되었다. 곧이어 지난해 Kuala Lumpur에서 개최되었던 제 9차 아시아 건축사대회 결과 보고가 있었다.

이어 인도 건축사회에서는 2002년에 개최예정인 제 10차 아시아 건축사대회를 델리에서 준비하고 있는 현지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에 따른 회의장소, 숙박편의시설 또는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건축물을 보여주는 Presentation을 가졌다.

인도에서 개최되는 아카시아 건축사 대회에는 학생 Jamboree가 동시에 개최된다.

이어서 Chairman이 각국 대표에게 권유하는 말로 아카시아 건축사 대회의 Sprite중의 하나는 각 국가별로 빠짐없이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기회 부여를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03년에는 제12차 아카시아 포럼이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자료 및 Flyer가 배부되었다.

그리고 2004년에는 제11차 건축사대회가 마카오 건축사회에서 주관하여 개최하도록 지난번 회의에서 결정 내려졌으며 마카오 건축사회는 차차기 대회의 회의장, 호텔, 마카오의 문화

### 아시아 건축인의 미래를 밝히는 초석으로 발전해야

제11차 아카시아 포럼이 MAN, Architecture, Nature란 주제로 2001년 9월 5~6일에 싱가포르의 Suntec city Auditorium에서 개최되었다. 포럼 개최직전 9월 3~4일 이틀간에 아카시아 이사회가 개최되었다. 9월 2일 오후 늦은 시각에 한국 대표단이 호텔에 도착하니 이미 Fellowship Meeting이 있었으며 우리는 Hotel 로비에서 Fellowship Member와 인사를 나누었다. 모두가 반가운 얼굴들이었다.

아카시아 포럼 진행 순서를 보면 포럼 개최 전날에 Fellowship Meeting이 하루종일 있으며 여기에는 한국 대표단이었던 김지덕 전 국제위원장과 이정근 이사께서 활동을 하고 있다.

포럼 첫째와 둘째날은 아카시아 회원국 이사회가 개최되며 셋째·넷째날에는 M·A·N을 주제로 토론 발표회를 갖는다. 마지막 날에는 개최국에서 주관하는 건축기행을 끝으로 포럼이 막을 내리게된다.

싱가포르에 도착한 대표단은 호텔에 Check-in한 후에 East Coast 식당가에서 저녁식사를 하며 금번 포럼에서

담당할 역할 등을 논의하고 예상되는 행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업무 분담을 하였다.

아카시아 이사회 한국대표에는 이철호 부회장, 이필훈 위원이 담당하고 아카시아 교육위원회에는 이인호 위원, 민규암 위원이 담당하도록 하였다.

#### 9월 3, 4일

아카시아 이사회가 열리는 첫날이었다. 우리는 대회 개최 장소에서 좀 떨어진 저렴한 호텔에서 숙박하였기에 일찍 서둘러 Suntec city 대회장에 도착하였다. 대회 개최 장소는 우리나라 현대건설과 쌍용건설이 공동 시공하였던 싱가포르의 매머드급 국제회의장이었다. ARCASIA 이사회가 개최되는 3층 회의실에는 벌써 각 나라별 대표단이 서로 인사를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다.

지난해에 Kuala Lumpur에서 만났던 다른 나라 대표단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였다. 오전 9시 30분쯤 회장단을

등에 대한 Presentation이 있었다. 한 가지 문제는 학생 Jamboree대회가 동시에 개최되나 마카오내에는 건축대학이 전무한 고로 바로 이웃에 접해있는 Hongkong 건축사회에서 학생 Jamboree를 대신 맡아 주기로 했다.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하나의 중국에 3개 체제가 존재하고 있다고 실감케 되었다. 금번 Fellowship Meeting에 대한 Summary가 Arcaisa Adviser인 Arch. R. Poon씨에 의해 정리 발표되었다. 그 내용으로는 아카시아 대회의 확대 방안, 회비 각출문제, 아카시아 대회의 이상적인 방향 제시등에 대한 토의내용을 요약 보고하였다.

Coffee Break후 이사회에서는 지난 일년간 각 국가별 건축사회의 행사내용 발표가 있었다. 그 내용을 보면 말레이시아 건축사회에서 계획중인 Arcasia Resource Center 준비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이어서 금번 제 11차 포럼에서는 Man, Architecture, Nature를 주제로 포럼의 High Light인 주제 발표자의 소개가 싱가포르 건축사회에서 있었다.

인도 건축사회에서는 Housing for the Poor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던 바, 이에 대한 설명을 요약해서 소개하였으며 각 회원국은 빈민을 위한 주거 공간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하였고, 필리핀건축사회에서는 International Hearth Care를 주제로한 국제 세미나 실례를 발표하였다.

이어 홍콩 건축사에서는 건축교육에 대한 세미나 개최 내용을 발표하였으며 일본 건축사회에서는 2008년 UIA 대회를 준비중에 있으니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2008년 UIA대회는 2002년 베를린 UIA 총회에서 경선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했다.

각 국가별로 건축활동에 대한 보고가 끝나고 이어서 아카시아 헌장에 대한

항목 보완수정이 있어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였다.

오후 Session에서는 아카시아 건축상의 심사위원 선발에서 Zone "c"를 대표하여 한국 대표로는 황일인 건축가 협회 회장을 위촉하였다.

싱가포르 건축사회에서는 Arcasia Web Site를 준비중에 있으며 각 국가별로 영문 Home page를 준비하여 SIA로 통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Web Site 주소는 "www. arcasia. com"으로 잠정적으로 채택하였다. 말레이시아 건축사에서는 ARCASIA Magazine을 준비중에 있으며 각국에서는 건축작품에 대한 자료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어 아카시아 교육 위원회 회의 보고와 UIA Region 4의 최근 소식으로는 북한과 미얀마가 건축분야 국제 교류활동을 준비중에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하였다. 이어 UIA Region4의 부회장에 호주 건축사회 대표자가 나설 예정이며 많은 성원 당부하였다.

UIA Region 4 이사로는 금번으로 한국 대표가 임기 만료되었고 이어서 새 이사로 스리랑카대표, 일본대표 및 중국 대표가 거명되었다. 이어서 2002~2004년도 아카시아 회장 선거가 있었다. 지난번 회장에 출마를 했다 낙선한 Hongkong건축사회 전 회장이었던 Arch. B. Will씨와 필리핀 건축사회 전 회장이었던 Arch. Yolanda씨의 경합이었다. 사전에 유입물을 각국 대표부에 FAX로 송부할 정도로 후보들은 열성적이었다.

16개국이 무기명 투표를 한 결과 단 한 표 차이로 HongKong의 Arch. B. Will씨의 승리였다. 승리한자의 기쁨소감과 낙선한 사람에 대한 우정어린 배려는 아시아 건축사들은 하나라는 느낌을 갖기에 충분하였다.

이들간의 짧은 시간으로 많은 국가별 쟁점 사항이나 건축 전문인으로써 정진해야 할 항목과 건축학술 자료제출

및 각 회원국의 숨은 노력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며 금번 이사회일정을 마치고 내일부터는 제 11차 아카시아 포럼을 성황리에 진행되기를 빈다. 금번 ARCASIA 이사회를 통하여 아시아 16개국의 건축사들의 우정과 아시아 특유의 건축을 창조하지는 보다 아시아 지향적인 화합이었다는 자긍심을 가짐과 동시에 전 아시아 건축인의 미래를 밝히는 초석으로써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딛고 있다고 믿는다. ㉠

(글/오근석)